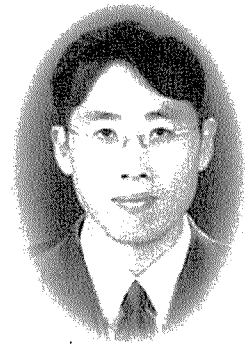


도서관인의
窓

책이 주는 여유로움



| 글 : 강상도*

조용한 아침 햇살에 그윽한 향기로운 차(茶) 한잔을 마시며 일상을 시작하는 현대인들 속에 힘겨운 고뇌를 마시며 또 하루는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 삶을 꿈꾸는 것이 희망이지만 현실 속에 나보다는 남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하는 우리내 삶은 비정한 현실에 나태(懶怠)함을 이겨야할 때입니다.

인터넷시대에 접어들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인터넷에 중독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정서에 너무 매달라가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눈가는 대로 책을 보는 습관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나에게 있어 그 작은 묘안(妙案)은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그 여유를 찾을 수가 있었다.

나에게 있어 책은 하나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일깨우게 하는 스승이요, 경전(經典)이었다.

어릴때 읽은 『어린왕자』을 그저 순수하게 읽었지만 어른이 되어 읽는 느낌은 왠지 순수함보다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에 나는 감탄이 절로 난다.

존재라는 가치를 깨우쳐준 어린왕자에게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책에는 소박(素朴)하고 겸허(謙虛)한 마음을 갖게 하며 경건(敬虔)한 자세를 배우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소박함 속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겸허하면서도 예(禮)를 익히게 하는 참진리가 숨겨져 있다.

책이 주는 여유로움은 정갈한 마음을 다듬어 주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일깨워주기도 하며, 삶을 되돌아 보게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창가에 앉아 책을 보는 여유로운 풍경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는 듯 침묵의 고고함이 풍겨 나온다.

따뜻한 방에 누워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시(詩)한술을 음미해도 그 여유로움란 아무도 남은 흉내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삶의 가치로움을 채우기 마련이다.

* 경상전문대학교도서관, ksd@kbc.ac.kr

좋은 책이란 물론 거침없이 읽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양서(良書)는 읽다가 자꾸 덮히는 책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바로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이 내 삶의 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함이요,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日常)을 바라잡아 준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양서(良書)는 또 없을 것이다.


책에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方向)과 지침(指針)을 선물한다. 그 지혜(智慧)를 마음으로 느낄 수 만 있어도 그 책의 반은 바로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마음의 양식은 없을 것이다.

지금 방송국마다 책 한권을 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만큼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어릴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내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21세기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메마른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블루오션이 있을까?

그리고, 사서는 고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용자를 감동시키는 마케팅과 상담을 제시한다면 그들은 책에서 여유로움을 되찾지 않을까? 

〈도서관문화 8월호〉 게재 글 중 누락된 부분을 정정합니다.

2005년도 8월호 30쪽의 글(황길례) 중 첫 번째 문단이 〈도서관문화〉 편집실의 착오로 상당부분(밑줄친 부분) 누락되어 게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필자 및 독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집 :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수필 공모 당선작

도서관협회에 바란다. / 황길례

도서관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사서와 비사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서의 역할은 좁게는 자료를 관리하는 일이고 넓게는 정보에 대한 망라적인 이해와 그것의 원활한 활용을 돕는 것이다. 그럼 비사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언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은 실제 상황은 그다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일 게다.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접근해 있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인간으로써 살아가자면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작게는 나라는 인간의 삶의 총체, 크게는 그 인간이 속하는 사회의 총체를 따지고 볼 때 눈앞의 일들은 매우 사소한 문제일 뿐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감상에만 젖어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순간만을 가진 정보에만 그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만이 그러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에게서 경제적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좀 더 무한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역시 이런 생각은 포기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즉각적이고 대중적인 시대에서는 그러한 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이 앞서나간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을지는 모르나 전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이 앞서고 기대가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가령 자신이 누릴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서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거나, 성공할수록 더욱 커지는 야망으로 숨이 막혀 죽게 될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는 절대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마음에서 뿐이다. (이하 생략)